양형모의 공소남닷컴 | ‘패션모델 출신’ 트로트가수 연가희 인터뷰

“눈물 딛고 컴백…‘내 머물 곳’ 찾았어요”

“일본 활동 시련의 나날들…팬들 응원에 극복 타이틀곡 ‘내 머물 곳은 어디에’ 운명의 노래”

“이 곡, 누구 주기로 하셨어요?”

가수의 말에 피아노를 치던 작곡가 공정식은 눈만 끔뻑였다.

“선생님, 이 곡 저 주세요.”

연가희의 앨범 타이틀곡이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그의 대표곡 ‘내 머물 곳은 어디에’는 이렇게, 운명처럼 그의 것이 되었다.

원래 타이틀곡 ‘좋을 걸’은 빠른 템포의 정통 트로트 곡이었다. 깐깐한 작곡가의 입에서 “이제 됐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꼭 1년이 걸렸다. 타이틀곡을 연습하기로 한 마지막 날.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간 연가희의 눈에 자신의 곡이 아닌 다른 곡을 치고 있는 작곡가가 들어왔다.

“처음 듣는 곡인데 멜로디가 너무 좋았다. 피아노 치시는 걸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더라. 이 곡은 무조건 내가 불러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선생님과 딱 세 번 연습하고 녹음실로 들어갔다. 원래 타이틀곡은 1년이나 연습했는데(웃음).”

‘내 머물 곳은 어디에’는 삶에 지친 중년의 영혼을 위한 노래다. 산뜻한 보사노바 리듬 위로 연가희 특유의 감성 짙은 보컬이 부드럽게 물결친다. 듣고 있으면 오래된 기억이 영화 컷처럼 편집되어 떠오른다. 트로트 같지 않으면서, 가장 트로트 같은 곡. 연가희가 가진 소리가 그렇다.

그에게는 ‘패션모델 출신 가수’라는 이름표가 따라다닌다. 하지만 늘 노래에 대한 꿈이 있었다. 노래의 DNA는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았다. 동네에서 노래자랑이라도 열리면 상이란 상은 모조리 쓸어왔던 어머니였다. 음악성과 외모를 물려준 어머니였지만 막상 딸이 가수가 되겠다고 하자 심하게 반대했다.

“엄마는 내가 여느 집 딸처럼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셨다. 그 마음 알지만 … 난 엄마 속을 많이 썩여드린 애물단지였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엄마! 열심히 잘 할 게요. 사랑해요!”

트로트 가수 연가희가 패션모델 출신답게 멋진 포즈로 카메라 앞에 섰다. 일본에서 트로트와 민요로 큰 인기를 얻고 돌아온 연가희는 보사노바 리듬의 트로트 곡 ‘내 머물 곳은 어디에’로 국내 트로트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가수가 되는 ‘길’을 몰랐던 연가희는 무작정 청주의 악기상을 찾아가 “노래가 너무 하고 싶다”고 졸랐다. 운이 따라주었는지 일이 주어졌다. MC였는데 무보수 조건이었다. MC를 하다가 기회를 얻어 정식으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이렇게 연가희는 가수가 되었다.

빠른 템포의 댄스음악이나 발라드를 주로 부르던 그에게 트로트는 또 다른 도전이자 벽이었다. “굴리고 밀고 당기는 트로트의 구수하면서도 맛깔나는 창법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트로트 창법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나만의 샤우팅 창법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번엔 국악학원으로 달려갔다. 그래서 배운 게 서도민요. 연가희는 “민요 덕을 일본에서 톡톡히 봤다. 일본에서 나는 ‘미녀’ 가수가 아니라, ‘민요’ 가수로 통했다”라며 웃었다. 앨범 수록곡 ‘얼씨구 좋다’에서 그의 민요실력을 엿들을 수 있다. 직접 가사를 쓴 이 곡은 트로트에 민요를 접목시킨 ‘퓨전가요’다.

2012년 일본으로 건너가 활발하게 가수 활동을 해온 연가희는 최근 본격적인 국내활동을 위해 돌아왔다. 이번에도 운명은 그의 등을 힘차게 떠밀었다.

“지난해 기획사 사기 등 일본에서 힘든 일을 겪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데 ….”

자신을 잊은 줄 알았던 팬들이 거기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노래와 영상이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었다. 눈물이 났다.

“이대로 일본에서 좌절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죽긴 왜 죽어. 다시 한 번 해보자. 꿈을 이루어보자.”

이렇게 해서 연가희는 돌아왔다. 그의 노래처럼, 그는 머물 곳을 찾아 돌아왔다.

“내 노래를 더 많은 분들이 듣고 불러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

가수의 인생은 종종 자신의 노래를 닮는다. ‘내 머물 곳’을 찾았으니 이제 ‘좋을 걸’과 ‘얼씨구 좋다’를 만날 차례다. 운명이 또 다시 그의 뒤를 힘차게 떠밀기 시작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통일, 그 아름다운 열매’ 2019 통일공감마로니에축제

2019 통일공감마로니에축제가 23, 24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통일교육협의회와 서울통일교육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후원한다.

2019 통일공감마로니에축제는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통일교육이 하나의 즐거운 문화로 시민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통일교육협의회 30여개 회원단체들과 통일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별히 올해 행사는 학업과 취업, 결혼 등으로 힘들어하는 2030세대가 통일의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기획됐다.

마로니에공원에 20개 이상의 통일부스를 설치해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평화와 통일을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통일미래세대들의 외침, 통일염원을 써내려가는 통일그라피, 북한 전통놀이 및 북한생활용품 전시, 통일을 꿈꾸며 출발하는 통일기차, 북한식 속도전 떡 만들기 등 분단과 통일을 공감하는 통일체험교육이 진행된다.

송광석 통일교육협의회 상임의장은 “평화시대를 선도해야할 통일교육은 시민들이 주역이 되어야 하며 사회통일교육의 주체로서 통일교육협의회와 회원단체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문화적 코드를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통일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야 평화시대에 맞는 통일공감대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신간

●이제 와서 사랑을 말하는 건 미친 짓이야
(오광수 저 | 애지)

오광수 시인의 첫 시집. 시에는 꽃과 땅으로 상징되는 아름다움과 덧없음, 오랜과 깊음이 모두 녹아있다. 표제는 역설이다. 이제 와서 사랑을 말하는 게 미친 짓이긴 해도 다시 한 번 사랑을 말하고 싶다는 시인의 간절함이 묻어있다. 시인은 뜨겁고 저릿한 ‘첫사랑’과도 같은 시의 복원을 꿈꾼다. 시인은 오랜 기간 신문사 문화부에서 일해왔다. 그래서일까. 조영남, 조용필, 한영애, 이소라와 같은 대중가수들을 소재로 쓴 시들이 이채롭다. 중앙대 문창과 시절 후배들 사이에서 ‘전설’로 회자되었던 오광수 시인은 “늦었지만 청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쓰겠다”라고 약속했다.

●내가 화가다
(정일영 저 | 아마존의나비)

이 책의 부제는 ‘페미니즘 미술관’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미술에서도 여성이 화가가 되려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했다. 사회적 제약이 따랐고 교육기회 역시 제한되었다. 작품들은 종종 스승이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서명되었으며 다수의 작품들은 오랜 세월 동안 남성대가의 작품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1970년대 초에 시작된 미술에서의 페미니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졌다. 하지만 여성화가의 작품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페미니즘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 가두어버린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들기도 한다. 예술가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작품이다. 이 책은 존 버거가 쓴 책 제목 ‘Way of seeing’ 그대로 ‘다른 방식으로 보는 방법’을 제시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식이란 ‘여성주의 시각’을 의미한다.

양형모 기자